

대구주보

연중 제21주일
2020. 08. 23. (가해) 제2229호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 16,19)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 지오바니 바티스타 카스텔로, 1598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년 | 이영재 대건안드레아 신부

세계 4대 성인을 찾아보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명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을 접하고, ‘누가 자기 자신을 모를까?’라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원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원을 묻습니다.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 나라의 열쇠를 선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신원에 맞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성부의 뜻에 따라 봉헌하셨고, 베드로도 이를 증언하며 교회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변 분당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자들이 많이 줄었다고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현재 성당에 열심히 오시는 더 많은 신자분들을 보면서도, 이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집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신자분들, 힘내세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받으셨지만(?), 주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파이팅!

참, 절친 중에 주일미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께 전화 한 통 해 주세요. [필름](#)

기술주의 패러다임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번영하게 될지 이야기하던 친구가 생각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 젊은 과학자는 인류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는데, 오늘날의 기후 변화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낙관론은 요즘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반사하기 위해 인공 구름을 만들거나 우주에 거울을 설치하자는 제안, 나노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기술 등장에 기대어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태 환경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술 혁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과학과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이라고 인정하시지만,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시지요. 과학 기술은 중요하지만,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술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증상만을 다루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지적하듯이, 현대인들은 기

술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기술의 힘에 무작정 끌려가다 보니, 인간을 위한 수단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힘에 종속된 채, 즉 ‘기술주의 패러다임’에 갇혀 인류는 ‘무한 성장’의 꿈을 꾸며 자연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에 몰두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쓰기에 참 좋은 것이 되었지요.

오늘날 생태 위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기술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주장처럼, 인류는 과학 기술 중심의 성장과 발전의 신화에 갇힌 ‘기술대’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인 ‘생태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을 버리고 동굴에서 살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가치와 중요한 목표들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네 의식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온전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는 단순히 나노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한계를 정하고 바른 자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와 영성” 속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문**

김수환 추기경 테마 뮤지컬-영상 스펙터클 ‘밥처럼 옹기처럼’ 공연

지난해 6월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아 기획 공연된 창작 뮤지컬 〈밥처럼 옹기처럼〉이 또 한 번 우리 곁을 찾아온다.

종교를 초월해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추기경을 추모하는 의미로 제작된 ‘뮤지컬-영상 스펙터클’ 〈밥처럼 옹기처럼〉은 지난해 초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시간이 50분에서 70분으로 대폭 늘었고 출연 배우들도 더 많아져 김 추기경의 숭고한 삶을 좀 더 심층적으로 조명하게 된다.


본 공연은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정치적·사회적 격동기에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우리의 아픔을 보듬었으며,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라.”라는 메시지로 몸소 사랑을 실천한 김 추기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품이다.

가난한 옹기장수의 막내로 태어난 추기경이 유년기를 보낸 군위군에서 후원하는 〈밥처럼 옹기처럼〉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예술 장르인 뮤지컬과 영상(프로젝션 매핑)의 결합으로 탄생했다. 서막 영상을 시작으로 1장 ‘옹기처럼 자라나다’, 2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사랑’, 3장 ‘세상의 그늘에 빛이 되리라’, 4장 ‘눈을 감는 그날’ 등으로 이어진다. 공연 배경 또한 영상으로 꾸며진다. 공연 마지막에는 배우들과 관객들이 다 함께 새로 편곡한 “등대지기”(추기경의 애창곡이기도 했던)를 부르며 추기경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 추기경 역은 뮤지컬 ‘영웅’, ‘오페라의 유령’, ‘한여름 밤의 악몽’ 등에 출연한 배우 김늘봄 씨가, 연출은 박철중 씨, 총감독은 이웅규 씨가 각각 맡았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 중시, 인간애, 평등, 정의 구현 같은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정신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공연의 목적이다. 스스로를 ‘바보’라 칭하며 바보 얼굴 드로잉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안구를 기증하면서 삶을 마감한 추기경이 남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이 뮤지컬-영상 스펙터클을 통해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공연은 오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와 5시,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이며 선착순 사전 접수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입장하며 좌석 간 거리두기로 진행된다.

공연문의 및 문자접수 : 010-3362-5616(예: ○○성당, 10인, 1회 공연) 



방 프란치스코 (?~1799년)

방(方)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면천의 ‘여’ 고을 태생으로 감사의 비장(裨將)을 지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교우들 사이에는 ‘방 비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우연히 고향 인근에 전해진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는 누구보다도 빨리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정산필 베드로 회장과 박취득 라우렌시오, 원시보 야고보 등과 자주 만나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하였다.

교리를 실천하는 데 비상한 열심을 가졌던 방 프란치스코는 교우들 중에서도 단연 뛰어나게 되었다. 그는 순교자들의 행적을 들으면서 자주 눈물을 흘렸으며, 그들과 같이 순교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였다.

그러던 중 1797년의 정사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방 프란치스코도 다음해 홍주에서 체포되어 6개월 동안 모진 고문과 많은 형벌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그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교우 두 명은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받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방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기쁨에 빛나는 얼굴로 천주와 동정 마리아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천주의 은혜이지만, 관장이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섭리의 은혜인데, 어찌서 당신들은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오. 만일 우리가 천당을 얻을 이렇게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소.”

이때 천주께서 방 프란치스코의 권고와 격려에 효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 결과 그의 두 동료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스스로 누우쳤고, 오래지 않아 거룩한 기쁨을 같이 하였다. 그들 셋은 함께 홍주 읍내에서 순교하였는데, 순교일은 1799년 1월 21일(음력 1798년 12월 16일)이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22,19-23	제 2 독 서	로마 11,33-36	복 음	마태 16,13-20.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교구장 동정

8. 16(일) | 포항 들꽃마을 축복식 및 미사

“뿌리 깊고 샘이 깊은 교육의 전당”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254억원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
-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5개학과 신설
 - 외국어자율전공학부
 - 인공지능로봇공학전공
 -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 예술치료학과
 -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영남지역 대형 대학 중 취업률 1위
- 2019.12.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대형 대학 : 재학생 1만명 이상)

입학 홈페이지 : www.ibsi.cu.ac.kr

학교 홈페이지 : www.cu.ac.kr

내가 먼저

박성규 엘리지오

화해의 손길을...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4일(월) 10:30 범어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교구 안내사항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1. 각 본당에서는 방역지침을 계속 잘 지키고 소모임을 최대한 자제 바랍니다.
2. 미사 때는 선착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하도록 할 것이며, 전체 혹은 파트별 성가대 연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은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에 적극 협력하고, 다른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2주간 본당의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말고 방송미사를 보도록 합니다.
4. 신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건강과 공동선을 위하여 다중집회에 대한 참석을 최대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9.5(토) 18:00~6(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성주 평화계곡피정의집 9월 향심 기도 피정

1박 2일 소개 피정: 9.12~13

2박 3일 소개 피정: 9.4~6 / 9.18~20

4박 5일 심화 피정: 9.29~10.3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3422-7587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소울스데이

주제: 나를 찾는 여행

내용: 나 보듬기, 자연 안에 쉬

대상: 개인, 가족

문의: (054)652-0591 / (010)2785-0591

행사 | 모임

바논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8.27(목) 13:00 기도 /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원룸, 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한투어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대구시 서구 염색공단로7길 13
010-3526-7401 (천주교 신자 우대)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상도(프란치스코) 신부
1968년 8월 29일

교육 | 모집 | 기타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앞산밀북카페 9.7(월) 개강

수 10:30 삶과 환경: 전현호 신부
목 10:30 공자와 논어: 최성준 신부
금 10:30 불교경전읽기2: 최동석 신부
문의: 622-1900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14:00 / 19:3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정원 5명 소그룹으로 수업합니다.

제31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9.21(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색소폰,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발성법, 지휘레슨,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음악연습실 대여, 섬유공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주일 복음 렉시오디비나

일시: 9.3 매주 목 19:30
장소: 범어동 바오로딸서원
참가비: 1만원
문의: 정막달레나 수녀, (010)6409-4610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9.10(목) 10:00~12:00
교육기간: 총 8주 16시간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적여정
문의: 254-2664 / (010)3228-3330

남대영기념관 여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은주(리나) 수녀, 657-1295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채용 | 안내

SOS프란치스코의집 직원 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게재일: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전 대구가톨릭대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담병원 4층

아트도서관

국내 첫 미술전문 도서관
도서관·갤러리·미술관·북카페
12만 여권의 도서, 수백여점 미술품 감상
(주차장 有) 아트도서관

관장 허두환 경일시메온 010-3588-5252
정순교 세실리아 010-6584-5252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좋은 병원

날씨원한위대병원

병원장 위대영 / 내정영은 세브 전문의 노성준 안우규소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종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방관(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영(토마스) 010-5623-9001

장수효요양병원

병원장 김경열 시론

입원 대상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치매, 신경계질환
노년성질환, 말기암 환자, 욕창, 수술 후 회복
장기적인 치료 요양

입원 시 필요서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 전 결과검사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의뢰서)

☎ 053)285-1100, 1101, 1103